



오늘의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_ 로마서 6:5

오늘의 주요기사

2-3 장애인의주일 특집
4 거리의천사들 / 우리들학교
5 밥퍼봉사 / 헌혈

6 새벽기도부 / 교회대청소
7 책속 명문장
8-9 무지개잔치 안내

10 유아숲사역
11 유아숲 종려주일에배
12 교사일기 / 겨자씨이야기

13 방문소감
14 교회사용설명서
15 십자말풀이



부활절의 기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기나긴 코로나 기간. 영육 간에 상처 입은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교제와 사역으로 불러 주시고 말씀으로 용기와 위로받게 하시며 기도로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은혜의 믿음의 여정 동안 주님 앞에 소망하고 결단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 한가운데 부활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던 처음 믿음의 감격도 고비마다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세워주셔서 함께 하셨음도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감동으로 가슴 판에 새겼던 모든 말씀 다시 보이게 하시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4년 만에 다시 기쁨과 회복의 전교인 무지개 잔치를 부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는 기쁨을 교우들에게는 예배의 회복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선물과도 같은 축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학원 교정과 교회 위에 성령의 무지개가 떠오르는 화창한 날씨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켜 주시며 기쁨의 함성과 은혜의 물결이 넘치는 천국의 잔치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사명을 헌신으로 섬기는 교사, 교역자, 봉사자 모두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교우와 이웃 모두 무지개 넘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글함글

장애인주일

우리는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문화재청의 자료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만 있다면 오늘날의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벼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세종대의 정치사에서 황희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조선 건국 후 예악을 정비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공을 세운 허조(許稠, 1369~1439)였다. 이후 허조는 좌의정에 오를 만큼 세종의 큰 신임을 받았는데, 그는 원래 어려서부터 체격이 왜소하고 어깨와 등이 구부러진 곱추, 즉 척추장애인이었다.

권균(權鈞, 1464~1526)은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 4등에 녹공되고 영창군에 봉해진 인물이다. 이후에도 그는 좌찬성, 이조판서, 우의정에 임명되고 영창부원군에 봉해졌다. 이러한 권균에게도 한 가지 고질병이 있었으니 바로 간질 장애인이었다.

윤지완(尹趾完, 1635~1718)은 숙종 대의 문신으로, 기개와 도량이 뛰어나고 청렴 검소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았다. 1682년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는데, 이후 풍증으로 한쪽 다리를 잃고 지체장애인이 되었다. 하지만 벼슬은 더욱 현달하여 우의정이 되고 청백리에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각정승(한쪽 다리의 정승)’이라 불렀다.

이외에도 영, 정조 때의 명재상이었던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은 한쪽 눈이 사시이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또한 이덕수(李德洙, 1577~1645)는 영조 때의 문신으로, 내직으로는 대사성과 대제학, 대사헌, 이조판서, 공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지냈고, 외직으로는 개성유수를 지냈다. 심지어 그는 동지정사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귀가 어두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다.

이처럼 조선시대만 해도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오늘날에 비해 훨씬 덜하였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뛰어난 공적을 이룬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 장애인에게 오늘날과 달리 사회적 장애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_ 레 19:13-14

13절에서 말한 가난한 사람들과 14절에 나오는 맹인을 성경은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한다. 이 둘은 똑같은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이들의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할 것을 레위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14절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장애인 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14절에는 장애인 보호 개념에 중요한 단어들이 여럿 들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저주라는 단어다. 이 단어는 여기에서 뿐 아니라 20장 9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24장 1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 두 군데에서 보여지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즉 장애인을 저주하는 것을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예로 들며 금지시키는 것이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분리되었던 지체들이 하나가 되게 한다. 성령의 도우심은 언제나 교회의 동역을 요구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아름다운 관계의 형성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지체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며 전체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조화롭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노홍주 전도사 / 사랑나무

김홍덕, 『장애신학』, 서울: 대장간, 2010. 김홍덕, 『장애신학2』, 서울: 대장간, 2020. 정창권, “조선시대 장애인, 그들에게 사회적 장애는 없었다”, 문화재청, 2013.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 구절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_ 요 3장 16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이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김은영 / 에바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_ 레 19장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홍경선 / 에바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_ 사 40장 29~31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어 새 힘주시기를 간구하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삶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훈 / 사랑나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_ 고후 4장 18절

제가 서른 즈음(노래하려는 것은 아님) 교회에 처음 출석하면서 받은 말씀 구절입니다. 처음 교회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시리즈였으므로 여기서 얻은 말씀은 아니고, 어디에서 듣고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받았고 가슴에 깊이 박혀있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내 영혼이 메마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과 어두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과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내 눈꺼풀이 한 겹 벗겨진 것처럼 모든 것들이 밝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문동학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으로 받은

장애인지원

말씀이 자기 신앙생활에서 비전과 소명의 말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에서 나눈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도, 아니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동관 / 섯담나무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_ 막 15장 34절

원주연 / 사랑나무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_ 롬 8장 28절

살아온 길을 거슬러 보면 좋았던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살아갈 기쁨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주연 어머니 / 사랑나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_ 살전 5장 16~18절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김동현 어머니 / 사랑나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_ 요 9장 3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위로 받습니다.

서창원 어머니 / 사랑나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_ 빌 4장 6~7

명서를 키우며 아플 때 힘들 때 불안한 마음이 들면 성경구절을 되뇌이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길 늘 기도했습니다.

최명서 어머니 / 사랑나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_ 요 3장 16절

이유는 제가 저 스스로 죄인임을 너무 잘 아는데 저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이기도 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원찬희 선생님 / 사랑나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_ 시편 16장 5편. 현대인의성경

주님! 고난을 만나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내 남은 삶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눈치챈습니다. 무엇보다 주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깨달음이 저를 살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염인호 선생님 / 사랑나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_ 욥 4장 2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도하는 등등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저의 감정에 휘둘려 선택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김철민 선생님 / 사랑나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_ 요 19장 30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뇌에 찬 간구를 드리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주님으로 세상 죄를 대신하게 하시니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능욕을 당하시며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손과 발은 죄인의 형틀에 못 박히시니 그 고초 당하심이 괴로우신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중보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니 우리가 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선언이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심이 되시니, 주의 은혜가 가슴으로 채워지고 만져져서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음이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덧입어 죄의 몸이 멸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최금주 / 섯담나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_ 잠언 1장 3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 살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무언가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며 어디서든 당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한균희 / 섯담나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_ 요 13장 34절

나를 친구라 하시며 나를 양이라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감히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어찌 흥넌들 낼 수 있을까마는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따라갑니다.

이민자 / 섯담나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_ 잠 4장 23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늘 가득해서 죄와 악을 언제나 능히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최은희 / 섯담나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_ 살전 5장 16~18절

저는 이 구절을 늘 사모하며 신앙인으로써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김성규 / 섯담나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_ 잠 1장 33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외로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염려할 것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고 있다.

전선덕 / 섯담나무

하나님의 선교
거리의 천사들

거리에서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3월 22일, 수요일예배를 마치고 ‘거리의 천사들’에 다녀왔습니다. 거리 천사는 노숙인과 자원봉사자들을 함께 일컫는 말인데, 사역이 거리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밤 10시에 이화동에 위치한 이 단체 섬김의 집(안기성 목사님 부부가 운영)에 도착하여 노숙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쁜 응원의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분들이 버리지 않도록 딱지 모양으로 접고 예쁜 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부부가 한 젊은이를 반갑게 맞이하였는데, 그 젊은이는 노숙인을 위해 자신의 가게에서 만든 맛있는 빵을 후원한 분이었습니다. 거리 천사들에게 드릴 선물이 풍성해질 것을 생각하니 편지를 쓰는 펜 소리도 노래의 리듬을 탑니다. 전달할 간식과 편지를 넣고 바구니 5개에 담아 2인 1조가 되어 노숙인이 있는 지하철 역사나 지하차도로 나갔습니다. 그분들의 잠이 깨지 않도록 먹을거리를 조용히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의 황량함 속에 이들은 한쪽 날개가 꺾인 천사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발, 무릎, 허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길에서 이뤄지는 이 교감에 마음이 몽클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그분들의 모습이 생각나고, 도시에 해가 뜨면 자리를 주섬주섬 챙기고 어디선가 방향할 그분들이 안전하게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역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분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갈 곳이 있는’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경임 권사 / 5교구



하나님의 선교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점심봉사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아이들

몇 주 전 주보에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들학교’학생들을 위해 3월 31일 점심 봉사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참여 신청을 했다. 아침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해 서울 관악구에 있는 ‘우리들학교’에 도착했다. 우리는 준비한 식자재를 가지고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기에 스스로 업무를 분담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전문가처럼 능숙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리고 그곳 윤동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소개를 듣고 교실을 둘러보기도 했다.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옮겨 소개하면 우리들학교는 2010년에 시작한 미인가 탈북 다문화 청소년 대안학교라고 한다.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보살핌과 교육적인 지원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지만 탈북학생들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북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치던 아이들이며, 새로운 삶을 찾고자 우여곡절 속에 중국과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간신이 입국한 아이들이기에 저마다 환경이 달라 교육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교장선생님은 탈북학생도 누군가의 귀한 자녀이면서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결핍된 교육 연한을 고려할 때 한국 출생 학생들 못지않은 체계적인 교육이 꼭 필요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한다. 아이들의 면면은 다양해 늦깎이 청년, 아이가 있는 미혼모,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어가 낯선 학생, 북한에서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무(無) 학력의 학생, 중국 국적의 학생들까지 있으며, 이들은 모두 기숙사가 없는 본교에서 수학하기 위해 인천, 안산, 수원, 의정부, 화성, 하남, 노원, 송파, 양천, 강서, 관악 등 수도권 각지에서 매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교하여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세상은 서로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생각하기에 오늘 가본 우리들학교가 잘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해본다. 서로 보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보시겠지요?

양병택 집사 / 6교구



하나님의 선교
청량리 밥퍼

작은 섬김은 축복의 비밀

지난 3월 30일(목)에 주님의교회 교우 10명이 함께 청량리 밥퍼 점심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청량리 밥퍼 점심 봉사는 1988년부터 다일공동체가 굶주린 이들을 위해 무료로 밥을 제공해 드리면서 시작된 봉사활동입니다. 다일공동체를 시작한 최일도 목사는 처음에는 라면으로 한 끼를 대접하다 1990년부터 밥으로 전환했고, 지난 35년 동안 다일공동체는 청량리에서 맛있는 점심 한 끼를 나눠왔습니다. 저는 밥퍼 봉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어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는데, 지난 3월 주님의교회의 '하나님의 선교'실천 주제가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에 성도들과 팀을 꾸려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 청량리에 도착한 우리는 밥퍼 운동 본부에서 준비한 소개 영상을 잠시 시청한 후 곧바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몇몇 분은 점심 식사 준비를 도왔고, 저를 비롯한 남성들은 때마침 들어온 배추 천 포기를 다듬는 일을 맡았습니다. 3월의 날씨치고는 제법 더운 날이어서 배추를 다듬던 우리들은 굵은 땀방울을 연신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점심 배식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고, 배식조, 설거지조, 서빙조로 각각 팀을 나눠 밥퍼를 찾아온 분들에게 점심 식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밥퍼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노숙자도 있었지만, 꽤 많은 수의 독거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깔끔하게 옷을 입고 찾아와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시기에 많은 수고를 하셨을 그분들에게 작은 정성을 통해 밥 한 끼 드리는 것이 제게도 큰 감동과 감사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고, 길가에 핀 봄꽃을 보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밥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내가 무엇을 드리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섬겼던 분들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잠시 나누는 작은 섬김만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칫 쉽게 잊게 되는 축복의 비밀과 같습니다. 밥퍼 본부는 앞으로 주님의교회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길 바랐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윤경수 목사**



하나님의 선교
헌혈

헌혈은 사랑입니다

오늘, 4월 16일(일) 사랑의 헌혈 행사가 실시됩니다. 남녀선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하나님의 선교 4월 캠페인의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작년 가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섬김과 나눔의 봉사활동이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우리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혈액 보유량 부족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혈액 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 가능한 인구가 줄고 대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수혈이 필요한 인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헌혈에 동참함으로 이웃과 작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선교를 실천해 간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풍성해 지리라 믿습니다.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 과정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건강 체크도 할 수 있으며 혈액이 필요할 경우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교우들에게 헌혈증이 기부되어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최근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의 조사결과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4%라는 보고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야고보서 2:26)라고 한 야고보의 말씀에 해법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하나님의 선교 실천 방안을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부활절 맞이 전교인 교회 대청소, 사랑의 헌혈 행사,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지역봉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향한 주님의교회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헌혈 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첫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둘째, 헌혈 가능 나이는 만 16세-64세까지입니다.(다만 65세-69세인 경우 60세-64세 때 헌혈 경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셋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항히스타민제는 당일 약을 드셔도 됩니다.

최우철 안수집사 / 제3남선교회장



새벽기도부
헌신자기도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의교회 새벽예배는 코로나 시기에도 가장 늦게까지 지속되고 회복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시작하고 주일을 빼고는 명절에도 쉬는 날 없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예배에 나오시는 분들께 교회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들 이라고 말씀하시며 더욱 더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새벽기도부는 부장 정현식 안수집사님을 중심으로 7명의 요일별 영상사역을 섬기시는 분들이 이른 새벽 4시 30분부터 영상실의 전원을 켜고 예배를 시작하면 조명을 켜고 예배 마치고 조명과 전원을 끄는 영상사역을 섬겨 주십니다. 또한 7명의 반주자분들이 한 달 동안 순번을 정해서 새벽예배 시 찬양 반주를 섬겨주십니다. 이른 새벽부터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섬겨 주시는 새벽예배 섬김이 분들에게 하늘에서 주님의 상급이 클 것을 믿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6시 30분에 새벽기도 헌신자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기도부를 이끌어 주시는 이종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을 전해주시고 개인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문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헌신자들뿐 아니라 새벽기도를 사모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손을 모으고 힘을 모아 기도하시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계획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 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새벽부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동트기 전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해서 매일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매일 아침 2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해가 뜨자마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 문제의 한복판에서 성벽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한 것입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더 할 수 없이 좋은 그 시간을 엄숙히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헌물은 기도의 헌물입니다. 주님의교회의 장년, 중년, 청년세대가 합심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주님께 바쳐드리는 기도의 헌물로 하나님의 총만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영선 집사 / 새벽기도부



전교인 교회 대청소

묵은 때를 벗기는 시간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낸 한 주간의 새벽기도 마지막 날 아침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의 몸 된 교회부터 깨끗하게 하고자 남·여선교회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긴 시간 동안 간헐 있던 우리들의 마음과 교회 활동이 이제 어느 정도 옛 모습으로 되찾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행사지만 몇 명이 모일까,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준비할까 등 많은 걱정과 기도를 하면서 선교회 임원들이 행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느 한두 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 모두가 한결같이 갖고 있는 마음이고 간절하다는 것을 체험한 행사였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참여했던 60여명의 수준에서 넉넉히 준비한다고 생각하여 그보다 2배 정도로 간식과 청소도구를 준비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남·여선교회 회원, 교역자들이 참여하여 모두가 놀랍고 환호하는 모습에서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선교회별로 대예배실, 중예배실, 계단 등 구역을 배정받고 모두가 더럽혀졌던 우리들의 죄악을 씻어내듯 모두가 열심을 다하여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 내면서 모두가 환한 웃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에 참여하여 순식간에 깨끗한 교회로 변하였다.

청소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오니 찬란한 아침햇살과 며칠 전의 단비로 연초록 나무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는 즐거운 하루를 생각하며 교회를 나섰다.



이명기 안수집사 / 남선교회연합회장

하나님의 선교

레슬리 뉴비긴과 칼빈의 선교적 대화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

뉴비긴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해 강조한다. 즉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적 성격과 정체성을 지닌 실체로서 선교는 단지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뉴비긴이 의미하는 바 교회와 선교의 관계는 교회가 선교적이 되어야 한다거나 선교를 중추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선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52p)

뉴비긴은 먼저 교회를 믿는 자들의 회중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교회론에서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믿음'이다.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의 모임이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뉴비긴은 믿는 자들의 회중으로서의 교회는 단지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지녀야 함을 역설한다. 뉴비긴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교리에 대한 동의나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의탁과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한다. (75~77p)

진정한 종말론적 희망을 가진 교회는 '선교사명에 대한 순종'을 특징으로 한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심판과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주어진 시간이며 이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수행함으로 완성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행하여야 할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 된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여러 활동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자 모든 행위의 근본 방향인 것이다. (88p)

뉴비긴이 그리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 증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으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증언 공동체이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도구로서의 교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교회가 뉴비긴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존재론적 특징이다. (89p)

뉴비긴에 의하면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뉴비긴에 의하면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스도인 즉 교회가 지닌 희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뉴비긴은 이러한 종말론적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120~121p)

뉴비긴에 의하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종말론적 희망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신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리고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주님이 다스리시는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종말론적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할 때 교회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뉴비긴이 말하는 '그 마지막 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이 희망 가운데서 교회는 복음의 증인 되는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121p)

뉴비긴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세워졌다. 교회는 통치함을 받는 자녀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와 그 특성들을 나타내는 곳이다. 교회는 시간성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역사철학적 이해 위에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중요성과 종말론적 희망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뉴비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이 땅의 가시적 교회가 존재하며 교회는 자신에게 부여된 종말론적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교회는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담지자로서 그 나라의 예시이며 맛보기이다. 교회는 그 존재로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이자 앞으로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다. (122 ~ 123p)

뉴비긴이 말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괴리되어 신앙을 개인주의화하고 공적 영역이 배제된 영역이 아니라 이 사회에 함께 존재하면서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이다. 베반스는 복음이 문화적 상황 가운데 뿌리를 내릴 뿐 아니라 그 상황에 도전하고 문화를 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은 회심을 통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가 자신을 대안적 공동체로 인식하고 이 세상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소비주의와 세속주의, 상대주의에 도전하고 세상의 문화와 습속을 변화시킴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생활의 영역은 사회의 공적인 전영역 즉 정치, 경제, 의료, 법률, 학문, 치안, 문화 등의 각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다. (134p)

뉴비긴은 복음이 각 사회의 문화 속에서 적실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평신도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선교의 중심축이 교회의 외적 활동이나 성직자 중심의 사역에서 회중들의 일상의 삶으로 행하는 선교적 증언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뉴비긴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의 선교 주체는 평신도이다. 회중은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이며 그 직업과 일상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의 최전선에 보냄을 받은 존재이다. 회중은 세상 속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가치를 입증하는 증인이 된다. 평신도는 예배와 생활, 기도와 노동, 교회와 세상을 잇는 살아움직이는 교량이다. (142p)

무지개잔치

자녀에게 기쁨을, 교우에게 회복을, 이웃에게 사랑을

매년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무지개잔치가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 전교인 무지개잔치는 5월 5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를 주제말씀으로 하여 “기쁨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어린이와 교구, 형제교회와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 열립니다.

초대의 글

2023년 전교인 무지개 잔치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목사 김화수입니다.

주님의교회는 어린이날(5.5)을 맞아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멈춰있었던 무지개 잔치를 “기쁨과 회복”이란 주제로 4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모든 교인과 다음세대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무지개 잔치를 통해 주 안에서 쉼과 행복을 누리도록 <2023 전교인 무지개 잔치>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2023 전교인 무지개 잔치>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길 소망하며, 꿈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으로 품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기쁨을, 교우에게는 예배의 회복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2023년 전교인 무지개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교인 무지개잔치 일정

구분	시간	어린이	교구	장소
1부	9:30~12:00	담임목사님 격려사 및 기도		본부석
		무지개잔치	큰 공 굴리기 신발 던지기 기둥을 세워라 박 터트리기	운동장
			점심 및 추억 만들기	본부석 / 각 지정 장소
2부	12:00~14:30	해피권 추첨		
3부	14:30~15:00			
정리	15:00~	전체 정리		-

- ① 당일에는 교회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 ②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용기 및 텀블러 사용해 주세요.
- ③ 응급환자나 미아 발생 시 본부석으로 오세요.

[무지개잔치의 추억]





즐길거리는 ‘플레이존’, ‘게임존’, ‘패밀리존’, 그리고 교육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존’에는 미취학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에어바운스와 전동기차, 고카트라이딩이 준비되며, 취학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에어바운스도 준비됩니다. 또한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바이킹과 우주선, 사격, 실내의 포토존이 있습니다. 특히 실내 포토존은 인생네컷 사진관으로 운영됩니다. ‘게임존’에는 추억의 두더지잡기, 농구게임, 해머치기가 있고 ‘패밀리존’에서는 유아숲을 대상으로 키링, 바람개비, 팔찌 만들기,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택킹 타임어택, 달고나 왕, 풍선아트 등과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풍당풍당 공깃돌을 던져라, Squishy Cross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교육부스에서 주님의교회 유유청청 사역을 안내합니다.

먹을거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쿠폰(5,000원)이나 쿠폰판매소에서 구매한 유료 쿠폰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과야끼, 닭강정, 쌀핫도그를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오고 떡볶이, 국밥, 북한향토음식과 음료, 그리고 팝콘, 슬러시, 솜사탕, 소프트아이스크림이 준비됩니다. 국밥은 지하식당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교구 대항으로 큰 공 굴리기, 신발 던지기, 박 터트리기의 교구행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행사가 끝난 후에는 해피권 추첨도 있으니 끝까지 남아 있으면 더욱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글함글

전교인

무지개잔치

기쁨과 회복

플레이존

에어바운스, 바이킹, 우주선, 고카트라이딩, 전동기차, 사격, 인생네컷(포토존)

게임존

추억의 두더지잡기, 농구게임, 해머치기

패밀리존

페이스페인팅, 키링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팔찌 만들기, squishy cross, 달고나 왕, 스택킹 타임어택, 풍당풍당 공깃돌을 던져라, 풍선아트

푸드존

푸드트럭(다과야끼, 닭강정, 쌀핫도그) 떡볶이, 슬러시, 시원한 음료, 팝콘, 솜사탕, 소프트 아이스크림, 향토음식

교구행사존

(9:30~12:00)
큰 공 굴리기, 신발던지기, 기동을 세워라, 박 터트리기

교육부스존

유유청청 교육사역 안내

5.5 (금)

9:30 AM ~ 3:00 PM

주님의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
문의) 02-416-5181

행사 당일 개인차량은 주차가 불가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회용품, 자제, 텀블러 및 개인물기 사용 권장합니다.

유아숲
유아숲 이야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유아숲은 주님의교회 미취학 부서로 아기부(-15개월까지)부터 영아부(15개월-3세까지), 유아부(4-5세), 유치부(6-7세)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유아숲 어린이들과 가정이 함께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의 주중 신앙교육자료를 소개합니다. 연초에는 교회력과 주요 행사를 표시하여 매일 함께하고 있음의 의미를 담아 유아숲 1년 달력을 배부하였습니다.



유아숲레터

이와 같은 일환으로 유아숲에서는 담당 교역자들이 함께 집필하여 사순절*부활절 가정 신앙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사순절 6주와 부활절까지 7주간 준비된 말씀을 따라가도록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주차별 컬러링과 말씀쑥쑥 활동(숨은 그림 찾기, 미로 찾기, 퍼즐 완성, 가정 기도문 쓰기, 인증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절기를 보내며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고 활동해 봄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느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4월 9일 부활주일에는 각 부서 예배에서 전도사님들의 설교 말씀에 이어 부활의 십자가를 함께 꾸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꽃에 이 의미를 담아 아이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생명과 사랑의 십자가를 완성하고 사진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생명력과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기억되고 참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주일



아기부



유아부



유치부

2023 유아숲의 교육 표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답게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주는 유아숲 친구들과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유아숲 1년 달력



신앙교육자료

유아송
종려주일 연합 행사

아름다운 벚꽃 아래에서 호산나



겨자씨이야기
4교구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진행형

저희들은 십여 년 이상 청담동을 중심으로 짜인 여성 구역으로 모두 여덟 가정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앙 연령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면으로 보나 흔들림 없는 식구들이라 보니 인도자로서 편안했다고 해야 할까요.

초창기 때의 기도 제목을 기억해 보면 다들 학업을 위한 것이었든 합당한 나이에 짝을 맺는 일이었든 자녀들의 취업 문제가 됐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니 흔레식만도 열 번! 때에 맞게 주시는 태의 열매로 새 생명의 탄생이 여덟, 아홉 명! 하지만 그저 평안한 기도로만 꾸려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겨자씨만큼 전교회적으로 뜨겁게 기도를 받은 곳도 드물지 싶습니다. 2019년 오랜 기도 끝에 수태되었지만 태중에서 고생했던 네 살 된 준수, 2021년 뇌출혈로 사경을 헤맸던 열 살 된 성곤이, 우리가 가지로서 교회, 작게는 겨자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교인을 향하여 당당하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많은 기도에 힘입어 두 명 모두 건재하다는 소식 이 자리를 빌어 전해 드리며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2020년 중반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갈팡질팡이었고 2021년도에 가서 그나마 듀오나 줌으로 셋팅하여 겨자씨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집집으로 모여며 예배드리던 때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 싶게 금요일 한번 편하게(?) 자기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면 되는 것인데도 모이기 참 힘들더군요.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외출할 곳이 많지 않을 법한데도 모두가 분주해 하면서 잘 자리 잡혀 있던 금요일의 루틴이 깨어지고 말더군요. 특히 찬송을 부르면 전자 기기의 한계이겠지요. 찬송의 속도가 전혀 합치되지를 않으니 은혜는 느낄 수도 없고 신경만 곤두서는 상황이 되어버려 나중에는 한 절만 부르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회의가 생기기를 이렇게 힘들게 굳이 모여야 하는 명분은 무어람? 이 모임을 안 갖는다고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도 아닌걸? 하는 마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예배 때였던가 습관적으로 외우는 사도신경 가운데 끝 단락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더군요. 얼마나 성도끼리의 만남이 중요한 사항이면 사도신경에 적어 두었을까, 그렇구나!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다는 증명으로 우리가 모일 이유가 있는 것이로구나~ 너무 기초적이고 뻔한 얘기지만 겨자씨 식구들에게도 이 느낌을 전하며 더욱 교회의 줄기에 붙어 있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 겨자씨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연 집사 / 4-14 민흥씨 인도자

교사일기
아기부

아기 예수님처럼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아기부 부장이라는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신 박수희 권사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교육부에는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세움학당 강의를 들으며, 저의 자녀들을 아기부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다녔던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와 초등, 중등, 고등부까지 수많은 교회 선생님들의 신앙의 사명감과 은혜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지금의 내 아들과 내 딸의 믿음이구나 생각하니 한없이 부끄럽고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움학당 마지막 참관수업에 아기부를 선택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기부에 세우시고자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을 아기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돌보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빚진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작년과 작년에 손주들이 태어나 현재 22개월, 10개월 아기들의 육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내 아이들을 키울 때는 너무 힘들어 예쁜지도 모르고 키웠는데, 손주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측 하신지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손주들을 힘껏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부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에 아기가 밤에 잠을 잘 자는지, 이뺄이하며 울지는 않는지, 이유식은 잘 먹고 소화는 잘하는지, 어린이집은 잘 적응하며 다니는지 육아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추운 날씨에도 예배를 사모하여 오는 아기의 엄마 아빠를 보면 얼마나 예쁘고 감사한지 천사처럼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아가들을 위해 손을 잡고 이 가정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손주기도보다 먼저 아기부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시키십니다. 아기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 가정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작은 천국으로 일구어 가길 온 맘 다해 기도합니다.

또한, 아기부를 통해 아기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기부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오정 전도사님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생님들의 헌신의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사랑이 아기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아기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기도하며 우리 아기들이 꽃처럼 어여쁘게 해처럼 밝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_시편 139:14

박수희 권사 / 아기부

주님의교회 방문 소감 및 설교 후기
하늘꿈교회 신화식 목사

동해에 번쩍, 서울에 번쩍

시집간 딸이 친정을 방문하듯 설레는 맘을 안고 주님의교회를 찾았습니다. 가끔씩 서울에 볼일이 있는 경우 올림픽대로를 지나며 멀찌감치에서 정신이고 강당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스라이 옛 생각이 떠올랐죠. 육 년간 사역했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십이 년 만의 방문이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우선은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기쁘다는 거죠. 그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생각은 ‘내가 왜 그랬을까’였습니다. 홈커밍데이 축제에 참석하듯 즐겁고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묵직한 돌 하나 짊어지고 한강 백사장을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유는 설교 강단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목회자가 항상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이사할 준비, 죽을 준비, 설교할 준비. 물론 설교할 준비야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설교가 쉬운 건 결코 아닙니다. 십 년을 해도 어렵고 이십 년을 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경우에 말이죠. 그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말씀을 전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입니다. 모든 목회자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그런 생각 하면 설교 못하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전한 말씀에 맞게 삶이 뒤따라야 하나, 설령 그러지 못한다 해도 설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수레잖아요.” 기본적으로 수고는 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어쩌면 평생 씨름해야 할 설교자의 숙명 같은 것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개척 당시의 비전으로 지금도 교회를 출입하기 위해선 학교 교문을 통과해야 하네요.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러 누구냐고 왜 왔냐고 물을까봐 은근 신경이 쓰였습니다. 성격이 좀 소심한 편이죠. 설교 하루 전 토요일에 미리 상경하여 숙소에 짐을 풀고 교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하도 오랜만이라 낯을 익힐 필요가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미 해가 진 뒤라 어두웠지만 강당 건물에서 풍기는 친숙함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확히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삼성역 인근 숙소의 안락함에도 아랑곳없이 자는 등 마는 등, 아침 7시 1부 예배 강단에 섰습니다. 침이 바짝 마르더군요. 물 한 컵이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긴장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50평 남짓 하늘꿈교회 본당에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뿔뿔이 뿔기된 정신하원 강당에 서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약간 과장한다면, 설교 마칠 때쯤 나간 정신이 돌아오더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한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2부 3부로 갈수록 마음은 편해졌고 목소리 톤은 세졌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저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여 동해 하늘꿈교회에서도 3부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었기에 더욱 은혜로웠다 하겠습니다. 다른 목회자에게 본 교회 강단을 맡기고 와야 했다면 쉽지 않았을 텐데,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함께할 수 있었기에 형제교회로서 더욱 뜻깊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필요할 때마다 도움만 받다가, 이번 기회에 주님의교회 예배와 성도들의 모습을 화면으로나마 보면서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설교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라도 잘 기억하고 삶으로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의 주제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가 많이 부각됩니다. 너무나 고마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준 고난의 십자가죠.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선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는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혹시 주술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부르는 것으로 사용되는 부적처럼 대하는 경우죠.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했습니까만은 무의식중이라도 그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영도 하에 출애굽하여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이 여러모로 불편한 환경으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제야 회개하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뿔뿔이 뿔기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외칩니다. 그 후 뿔뿔이 뿔기는 신성시되다가 칠백여 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마침내 숭배의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분향하고 제물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적인 왕 히스기야는 타락한 신앙의 정화를 위해 뿔뿔이 뿔기를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뿔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히브리어로 ‘느후스단’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형상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다면 부수어져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십자가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귀하고 거기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값지기에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저 로마제국의 사형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어떤 멋진 퍼포먼스를 연출하려고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달려 죽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발목을 잡는 나의 옛사람을 찾아서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음란이나 도박 등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중독일 수도 있겠죠. 통제되지 않는 분노나, 우월 의식 또는 열등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십이 년만의 화려한 한들이었습니다. 그리운 얼굴들 뵈서 좋았습니다. 천국 예배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불리 먹고 돌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말입니다. 어디에 있는 서로 기도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겠죠. 이해인 수녀의 시 <인연의 앞사귀> 일부를 나눕니다. ... / 살아가면서 덮어두고 / 지워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 그대와 사랑, 그 추억만은 /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 힘이 되는 까닭이다 / 두고두고 떠올리며 / 소식 알고픈 단 하나의 사람 / 내 삶에 흔들리는 앞사귀 하나 남겨준 사람 / ... 신화식 목사 / 하늘꿈교회

교회사용설명서④

교회 소식 알아보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주님의교회는 나름 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등록 교인은 1만 명이 넘고, 매주 출석하는 교인도 몇천 명에 이릅니다. 1만 명은 무려 경상북도 울릉군의 인구와 경상북도 영양군의 인구 사이에 해당되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런 규모 안에서도 이런저런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 친해지거나 같은 겨자 씨에 속하여 가족과 같이 허물없이 지내는 교인도 있고, 주일마다 자주 마주쳐서 낯은 익지만 인사는 하지 않고 지내는 교인도 있으며,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교인도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초기에는 교인들과의 사이가 작은 마을과 같았습니다. 어느 집 손가락이 몇 개인지, 어느 집에서 돌잔치를 하는지 일부러 알려 하지 않아도 주일만 지나면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여 굶은일에는 찾아가 같이 슬퍼하고 좋은 일에는 같이 기뻐했으며, 힘든 일에는 십시일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교회가 작은 도시 규모로 성장한 지금, 교회 소식을 전하고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관심이 필요해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 소식 알아보기입니다.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에서 소식이 전달되는 통로는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보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역시 <주보>입니다. 매주 발행되는 간행물이어서 ‘주보(週報)’라고 합니다. 교회 주보는 다른 간행물에 비해 가장 작은 크기와 지면이지만, 교회의 모든 소식이 압축되어 게재됩니다. 한 해의 목회 주제, 절기의 표시, 예배 시간과 예배 위원, 설교 말씀, 새가족 소식, 편의시설 안내, 교회 소식, 모임 안내, 교우 동정, 새신자 안내, 헌금 통계, 봉사 안내, 헌금 계좌와 같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정보가 뽁뽁이 들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http://www.pcltv.org/>)는 온라인에서 모든 소식의 플랫폼이 되는 공간입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방대한, 교회와 관련된 온갖 정보와 기록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교회의 기본 원칙, 교회의 역사, 섬기는 분들, 정관과 규정, 예배와 설교, 양육과 훈련, 공동체 정보, 교회 소식과 같이 모든 정보와 소식이 모이고 제공되는 곳입니다. 심지어, 인쇄물로 제공되는 <주보>와 <함글함글>, 주일 설교, 책자로 간행된 <주님의교회 25년사>와 같은 내용들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각종 서류 발급도 신청할 수 있고, 교회 재정과 같은 살림 내용도 투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글함글

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문서선교를 목적으로 펴내는 정기간행물입니다. 평균 3주 간격으로 발행되며, 성도들이 알고자 하는 것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알아야 하는 것,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예배와 설교, 전도와 선교, 교회 사역과 행사,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 신앙 간증과 기독교 교양 등이 포함됩니다. 소식의 전달뿐 아니라, 교회 역사의 기록으로 빠뜨리면 안될 일들도 챙겨서 게재합니다. 인쇄된 <함글함글>은 주일마다 배포되며,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바야흐로 멀티미디어의 시대, 영상으로 기록된 주님의교회 소식과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https://www.youtube.com/@PCL>’를 바로 치거나,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주님의교회PCL’를 검색하시면 주님의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일예배 동영상 등을 보실 수 있으며, ‘채널’에 들어가시면 유아숲, 청소년숲, 청소년숲, 청년부, 영어예배의 부서별 동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밖에도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소식의 통로로 활용됩니다. 대체로 세대별로 선호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르다보니, 주님의교회에서도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부의 경우 주로 인스타그램(@pclyoungadult_)을 통해서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예배 내용과 소식이 제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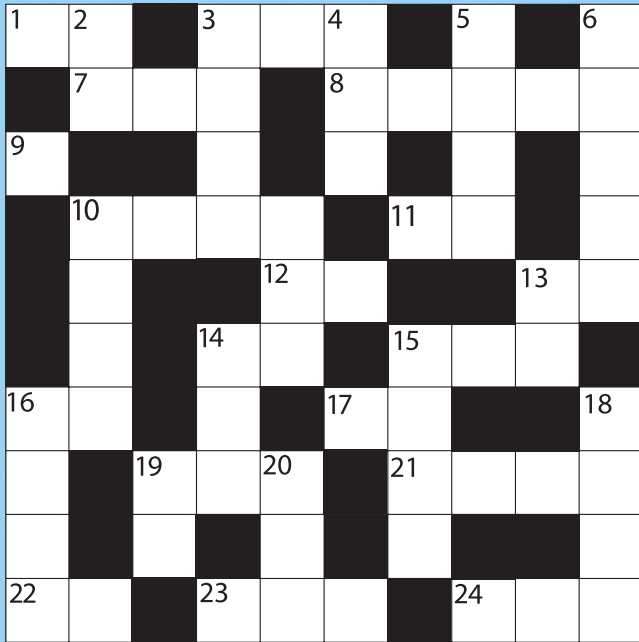
청소년숲의 경우도 인스타그램(중등부: @popcornrtree_pcl, 고등부: @visiontree_pcl, 고등부 찬양팀: @pcl_mw_ministry)을 통해 주일 예배 안내, 주일 풍경(사진, 영상) 공유, 그 외 일정 공유 등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숲에서는 또한 VIPministry 어플리케이션을 주보 공유, 큐티 나눔, 성경필사 인증, 순방이츠 외 심방 신청 및 리뷰, 절기 교육 프로그램, 수련회 프로그램 진행, 반교사 학생 검색 등 소통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도시 생활의 특징을 익명성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짐짓 아는 척 모르는 척 지내는 삶이 도회적이며 편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보다 더 가까운 삶,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삶을 지향합니다. 속한 공동체의 소식과 정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참여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이웃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 그것도 주님의교회 성도들에게 허락된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뭉치 역대상

이번 호에는 <역대상>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부터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담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추려 기록한 책으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해설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65호 '열왕기하' 편 정답



가로 힌트

1. 압복 강 상류에 위치한 곳으로 갓 지파와 경계를 이루는 곳. 다윗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대상 20:3)
3. 구스의 아들. 함의 손자이다. (대상 1:9)
7.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욥단의 아들이다. (대상 1:20)
8.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사독의 아들이며 아사랴의 아버지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난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궁정에서 다윗에게 비밀정보를 전달했다. (대상 6:8)
10. 셋의 자손이며 에녹의 아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 가장 장수한 사람이며, 예수님의 조상이다. (대상 1:3)
11. 인적이 없고 개척되지 않은 넓은 들판. 성경에서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로 나타난다. (대상 5:9)
12.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가인과 아벨, 셋을 낳았으며 930세에 죽었다. (대상 1:1)
13. 방주를 만들어 홍수 때 살아남은 인간.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 (대상 1:4)
14.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엘바알의 아들. 아얄론의 족장이었으며, 형제 브리야와 함께 블레셋의 성읍 가드를 침략하여 가드 거주민들을 쫓아내었다. (대상 8:13)
15. 흐르는 시내 주변. 시편에는 "○○○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라는 절이 있다. (대상 11:32)
16. 갓의 자손. 아비하일의 아들이다. (대상 5:13)
17. '술 짜는 틀'이란 뜻의 블레셋 도시. 다윗에 의해 정복당했다. (대상 18:1)
19. 포도를 말린 것. 구약 시대에는 떡에 넣거나 과자를 만드는 데 쓰는 중요한 식재료였다. (대상 16:3)
21. 가나안의 자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땅에 살던 원주민이었다. (대상 1:14)
22. 유다의 장자인 엘의 아내. 유다 지파의 계보와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실려 있다. (대상 2:4)
23. 솔로몬의 후손. 스가냐의 아들이다. (대상 3:22)
24.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다윗 왕 시대 열두 군대사령관 중의 한 명으로 시위대 장관이었다. (대상 11:22)

세로 힌트

2. 사울 왕가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 여이엘의 아들이다. (대상 8:30)
3. 아람의 소바 왕으로 르홉의 아들. 유브라데 강 유역의 지배권을 회복하려고 출정했다가 다윗에게 패배했다. (대상 18:3)
4. 함의 손자이자 구스의 아들. 상품 향재료와 보석, 황금으로 두로와 무역하였다. (대상 1:9)
5. 시그리의 아들이며 하사바의 아버지. 유다 4대 왕 여호사밈 내각의 지휘관으로 믿음이 깊었다. (대상 6:45)
6. 레위인의 성읍. 다윗이 시글락을 치고 얻은 물건들을 이 성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다. (대상 6:57)
9. 아담의 셋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아벨 대신으로 출생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시조가 되었다. (대상 1:1)
10. 에돔 왕 하달의 아내. (대상 1:50)
13.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에서 낳은 13명의 아들 중 하나이다. (대상 3:7)
14. 아마 섬유로 곱게 짠 천. 애굽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였다. (대상 4:21)
15.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원래 이름은 '맛다냐'였는데 바벨론 왕이 바벨론 식으로 개명시켰다. (대상 3:15)
16. 갈렙의 둘째 아내. '에브랏'이라고 쓰기도 한다. (대상 2:50)
18. 바냐의 증조부. 느아라의 아들이다. (대상 3:23)
19. 집을 짓는 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하지 말라" (대상 17:4)
20. 고멜의 아들. 노아의 아들 아벳의 손자이다. (대상 1:6)

교회 행사

자녀에게는 기쁨을, 교우에게는 애배의 회복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2023년 전교인 무지개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교인 무지개잔치

기쁨과 회복

블레이즈
에어바운스, 바이킹, 우주선,
고카트라이딩, 전동기차,
사격존, 인생네컷(포토존)

게임존
추억의 두더지잡기,
농구게임, 해머치기

패밀리존
페이스페인팅, 컵만들기,
바람개비만들기, 팔찌만들기,
squishy cross, 물고나왕,
스테랑 단원아바, 통영통영
공작들을 만져라, 풍선아트

푸드존
푸드트럭(다도아기, 닭강정,
살랑도그) 떡볶이, 순대,
시원한 음료, 팝콘, 송사탕,
소프트 아이스크림, 향토음식

교육행사존
(9:30~12:00)
큰 공 굴리기, 신발던지기,
기동체 세워라, 박 터트리기

교육부스존
유유청정 교육사업 안내

5.5 (금)
9:30AM ~ 3:00PM
주님의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
문의) 02-416-5181

이스라엘 성지순례

4주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성지와 요르단의 성지 순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와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① 예루살렘 중심지로 예수님 흔적에 따라 순례
② 출애굽 후 광야를 걸었던 지역 순례 ③ 이스라엘 핵심지역 순례

기 간 2023.9.11(월)~23(토)
대 상 주님의교회 등록교인 중 성지순례 교육(6반기 양육클래스) 참여 가능자
인 원 30명
장 소 이스라엘, 요르단
경 비 전일정 경비 \$1,980 + 항공료(별도)
항공스케줄 대한항공(직항)

2023 온·오프라인 비전트립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온라인
코스타리카 (금상훈 선교사)
일정 2023. 8. 4 (목)
담당 이대현, 배운환 목사 / 유정아 권사

오프라인
키르기스스탄 (윤배나바 선교사)
일정 2023. 7. 23 (주일) ~ 31 (월)
담당 이종성 목사 / 신성원 안수집사

필리핀 (유성훈 선교사)
일정 2023. 7. 26 (수) ~ 7. 31 (월)
담당 한창진 목사 / 이재훈 안수집사

베트남 (최화영 선교사)
일정 2023. 7. 31 (월) ~ 8. 5 (토)
담당 윤경수 목사 / 김미선 권사

모집기준 : 신학수 (최대 15명 + 예비 10명)
연행제한 : 만 70세 이하 / 초등학교생 (보호자 동반)

헌혈은 사랑입니다

Jesus gave us everything

● 일정 | 4.16(주일) 오전 9시~오후 4시
● 장소 | 교회 로비 앞 주차장(헌혈 버스)
● 버스 대수 | 40명당 1대
● 기타
- 헌혈 가능나이 만 16~64세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1주일 지나야 헌혈 가능(미접종자 무관)
- 코로나 감염자는 격리 해제후 10일 지나야 헌혈 가능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항히스타민제는 당일 약 드셔도 됩니다.
(아스피린, 감기약 3일, 항생제 7일 후 가능)
- 교우들을 위한 헌혈을 기증해주시고 있습니다.

● 주관 | 주님의교회 남여선교회 연합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Jesus gave us everything

교회 일정

4/18(화)	평남노회 정기노회, 목사안수식
5/3(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5교구 주관)
5/5(금)	무지개잔치

알립니다

1. 유아세례교육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

신청 : 4/23(주일)까지

교육 : 4/30, 5/7(주일) 오후 2:30(온라인)

유아세례예식 : 5/14(주일) 3부 예배 시

문의 : 이창수 안수집사(010.5472.7059)

2. 2023 전교인 무지개잔치

일시 : 5/5(금), 오전 9:30~오후 3:00

주제 : 기쁨과 회복(시 30:11)

대상 : 주님의교회 전교인(유유청정 및 1~8교구), 지역주민

장소 : 주님의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

3. 2023 주님의교회 온·오프라인 비전트립 일정 및 모집 안내

키르기스스탄 7/23(주일)~7/31(월) - 오프라인

필리핀 7/27(목)~8/1(화) - 오프라인

베트남 7/31(월)~8/5(토) - 오프라인

코스타리카 8/4(금) - 온라인

모집 : 4/16(주일) 1층 로비

문의 : 박성갑 안수집사(010.5274.8590)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력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
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이미용부 봉사활동

천안 하늘씨앗교회가 지역사회 어르신을 섬기기 위해 개최한
경로잔치에 이미용부가 동참하였습니다.



(사)섬김과나눔 2023년 1차 임시 회원총회

2023년 3월 28일(화) 14:30 정신여고 김마리아회관 중예배실에서 (사)섬김과나눔 2023년 제1
차 임시회원 총회가 열렸다.

1호 의안으로 2022년 수입과 지출 결산보고서(안), 2호 의안으로 2023년 1차 추경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안), 3호 의안으로 임원선임(안)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임원으로 노봉옥 장로, 이성준 장로, 정상기 안수집사, 박준명 안수집사와 감사로 황용환 장로
가 선임되었다.